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 규 선 · 변 재 면

한국농업전문학교

Development of Long and Short-run Educational Programs for U-turn Farmers

Gyu Sun Suh · Jae Myun Byun

Korea National Agricultural College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long and short-run educational programs for u-turn farmers based on their need asses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view of literature and surveys. Subjects of this surveys were 310 participants of agricultural training programs develop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for u-turn farmers in 1997 and 1998.

According to major findings, many participants were faced with problems such as financial shortage, deficiency of farming skills, difficulty of marketing, new neighbours unfavourable gazing and farm labour shortage. These problems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problems at their preparing stage and the problems of adjusting stage in their farms.

And also the participants suggested that educational programs for them contain knowledge based teaching and technical practices with focus on their problems solving. With their suggestion various knowledge and technical modules were selected. Using these module several kinds of long and short-run educational programs could be developed.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농촌·농업인구는 1960년대 후반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연평균 감소하는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1997년도 농업기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농가인구 감소 규모가 23만명 정도로 종전의 연평균 40만명씩 감소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도시의 타산업으로 진출하는 이농현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도시의 타산업에서 농촌의 농업분야로 귀농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농림부(1997. 7)의 발표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귀농한 가구수가 5,345호였으며, 1992년도부터 (표 1)에서와 같이 매년 귀농가구수가 증가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MF사태 이후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귀농인구의 급증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은 3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실업자

〈표 1〉 연도별 귀농가구수

년 도	'90	'91	'92	'93	'94	'95	'96
귀농가구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누 계	371	670	1,083	1,701	2,363	3,285	5,345

가 급증하게 될 전망이다. 도시의 실직자들이 귀농을 할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둘째는 영농의 규모화·전업화를 위하여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기존의 농업인들과 경쟁관계가 될 귀농인구를 환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정적인 입장이며, 셋째는 교육수준이 높고 젊고 유능한 귀농인구의 정착지원은 실업률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노령화, 부녀화 추세 가 지속되어 온 농업인력의 질적향상과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기여한다는 절충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데에도 필요한 것이므로 귀농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은 누구에게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적성, 영농종사 여건, 그리고 농업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환상적이고 무모한 귀농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귀농교육은 귀농의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생활에 익숙해왔던 사람이 농촌·농촌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므로 이왕에 귀농한 경우라면 적응능력을 가급적 조기에 배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신규 취농자의 대다수는 정규 농업교육을 받은 후 또는 청소년기에 영농에 참

여한 후부터 취농을 한 경우가 아니다. 농업인 후계자의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에 의거 현역병으로의 군생활을 하지 않고 청소년 취농자가 중단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읍면당 1~2명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농업계고등학교, 농과계 대학등에서의 정규농업교육을 받은자의 10% 이내에서만이 취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청장년층 영농인은 수년간의 도시취업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용환, 1997).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장년층 영농인 대다수는 U턴취농자 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귀농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비로소 귀농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저마다 필요성에 의해서 여러 형태의 귀농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귀농자들의 교육요구를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단기 귀농자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는 귀농자의 유형과 귀농단계별로 가장 어려웠던 사항을 알아보고, 그러한 어려움의 해소에 필요로 했던 정보나 교육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므로써 귀농자의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기존의 귀농자 교육프로그램을 수집하여 각각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귀농자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어느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주체에 따라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귀농자의 유형과 교육요구

귀농자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은 U턴 귀농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향인 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에 다시 고향농촌으로 되돌아온 귀농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도 부모와 뜻이 맞지 않거나, 농촌 총각 결혼곤란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시 취업생활을 하다가 부모의 농업은퇴 또는 결혼에 성공한 후에 고향으로 귀농하는 계획적인 U턴귀농자가 있을 수 있고, 오랫동안 고향농촌을 떠나 도시 생활에 정착한 후에 실직이나 조기퇴직, 가족 구성원의 건강문제 또는 도시로부터의 추출요인(pushers)에 의하여 고향농촌으로 귀농하는 추출된 U턴 귀농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U턴 귀농자와 비교되는 귀농자 유형으로 J턴 귀농자와 I턴 귀농자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J턴 귀농자는 U턴 귀농자와는 달리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지역의 농촌으로 귀농하는 귀농자를 말하고, I턴 귀농자는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업생활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자를 말한다. 이러한 귀농지역과 귀농자의 연고성에 의한 3가지의 귀농자 유형을 가지고는 귀농동기와 목적을

알수 없기 때문에 교육요구를 유추하거나 도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도시로 부터의 추출요인(pushe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이농인구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농촌의 잠재실업, 영농의 영세구조, 과중한 농업노동과 낮은 노동생산성 등을 농촌으로 부터의 추출요인으로 개념화한 것과 같이 도시에서의 소음, 탁한공기, 오염된 식수, 높은 범죄율, 학교내의 폭력, 물가고, 주택난, 조직생활의 스트레스 등을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이주케하는 추출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농촌에서의 향도이촌인구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도시의 흡인요인(attractive elements)으로 다양한 취업기회, 편리한 주거시설, 대학·병원 등의 교육 의료혜택의 양과 질 향상 등이 지적되었듯이 도시인구의 향농이도(向農移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농촌의 흡인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도시로부터 추출요인과 대비해서 제시할 수 있는데 맑은 공기, 낮은 범죄율, 조용한 전원생활, 좋아진 생활여건, 영농의 기계화·과학화 등이 농촌의 흡인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출요인 및 흡인요인에 연계시켜서 Roseman(1981)은 도시인구의 농촌이주자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 바 있는데 첫째로 쾌적 환경 추구 이주자(amenity mover)를 들고 있다.

이러한 이주자는 농업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쾌적하고 경치가 수려한 곳에 저택을 마련하여 도시를 떠나들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거나 필요로 하는 호화 생활가능자, 문필가, 예술가 등이 주로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기퇴직이주자(early retire mover)를 들고 있는데, 이들은 부호도 저소득층도 아닌 40~50대 화이트칼라(whitcolor) 계층으로 퇴직금의 재투자나 연금에 의한 합리적인 노후생활 등을 목적으로 이주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로 유형은 실직이주자(job seeker)인데, 이들은 조기 퇴직자와

는 달리 재투자할 만큼 재정적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실직이 되어 농장 인부 등의 취업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라고 보았으며,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인 대안문화추구 이주자(counter cultureres)는 일종의 도시문화에 대한 대항운동이나, 환경운동, 집시(heepy)생활 차원에서 소집단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하였다. 이러한 귀농자 유형은 교육프로그램개발에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귀농자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귀농가구의 생활실태조사 연구를 통하여 귀농자의 귀농동기를 파악한 바 있는데(조록환, 1998), 여기서는 ①농촌생활이 좋아서 ②자신·가족건강을 위해서 ③농업의 전망이 좋아보여서 ④도시에서의 저소득을 피해서 ⑤정년 및 퇴직후 여생을 위해서 ⑥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해서 ⑦사업실패 또는 실직을 당해서 ⑧소속단체 모임을 위해서의 순으로 귀농동기와 목적이 파악된 바 있다.

여기서 “농업전망이 좋아서”라든지 “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해서”는 영농을 창업해 보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농촌생활이 좋아서”나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정년 및 퇴직 후 여생을 위해서”는 직업적 새출발 보다는 전원생활을 위한 귀농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에서의 저소득을 피해서” 등은 어쩔수 없이 도시를 피하고자 하는 수동적·일시적인 귀농자일 가능성이 높고, “소속 단체의 모임”을 위해서는 “환경운동”, “교육 바로잡기(대안교육등)”, “종교적인 실천” 등과 관련되는 단체의 운동차원에서 귀농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도 귀농자의 귀농동기 또는 목적에 따라서 귀농자의 유형을 적게는 3가지로 많게는 8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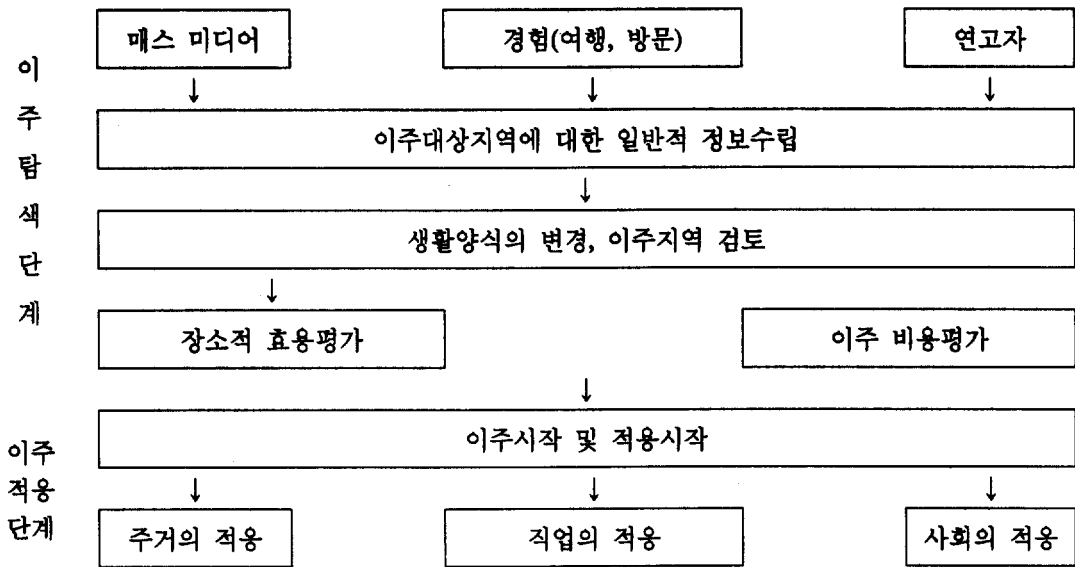
으며, 그러한 귀농자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종류와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귀농과정과 교육요구

귀농은 일종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과정이다. 여기에도 귀농탐색, 귀농의사결정, 귀농준비, 귀농시행, 귀농적용 및 유지발전 등의 직업발달과정을 겪을 것으로 믿어진다. 직업발달과정에 관한 이론에는 Ginzberg 이론, Super이론, Tideman & O Hara 이론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서규선·이무근, 1984). 직업선택이론은 개인의 적성, 취미, 개인차 등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직업마다 요구되는 주요인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의 직업을 선택하여 진출하여야 잘 적응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의사 결정과정을 중시한 이론이라면 직업발달이론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과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적응과정도 환상적단계, 탐색적단계, 현실적 선택 및 준비단계, 시행 및 유지발전단계, 쇠퇴 또는 은퇴단계 등으로 발전과정을 밟는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각 단계별로 적합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직업사회의 적응이 원만해진다는 이론이다.

귀농은 또한 인구의 이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Brown 과 Moore(1970)는 인구이동과정을 잠재적 이동성, 탐색과 평가, 적용등 3단계 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고, Fielding(1974)은 이주탐색, 이주적용 등 2단계로 설명하되 (그림 1)과 같이 각 단계마다 보다 복잡한 세부 과정이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보면, 귀농자의 귀농과정은 “귀농 탐색단계”, “귀농 준비단계” 및 “귀농시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보다 복잡한 귀농과정으로는 “귀농탐색”, “귀농의사결정”, “귀농준비”, “귀농시행 및 적용” 등 4단계 이상으



〈그림 1〉 Fielding의 이주단계

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각의 귀농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정보의 종류와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Ⅲ. 연구결과

1. 귀농자의 교육요구 조사를 통한 귀농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귀농 목적

이 연구에서의 조사대상 귀농자는 1997년도와 1998년도 농촌진흥청의 귀농인 영농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자들이었다. 교육현장에서 실시한 조사에 응한자는 310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학력, 연령, 귀농하기 전의 직업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학력은 대졸이상 134명(43.2%), 고졸 129명(41.6%), 중졸이하 47명(15.2%)이었고, 둘째 연령은 50세 이상 69명(22.3%), 40~49세 154

명(49.7%), 30~39세 57명(18.4%), 30세 미만 30명(9.7%)이었으며, 셋째 귀농하기전 직업은 회사경영 및 자영업자 39명(12.6%), 직장생활 271명(87.4%)이었다. 직장생활자 중에는 자진퇴직 및 정년퇴직자가 대부분이었고, 직장감원, 회사부도 등으로 어쩔수 없이 퇴직하게 된 경우는 66명(21.2%)이었다.

한편, 영농을 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중에 있는 사람이 95명(30.6%)이었고, 1,000평 이하를 갖고 있는 사람은 60명(19.4%), 1,000~5,000평을 갖고 있는 경우는 94명(30.3%), 5,000평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는 61명(19.7%)이었다.

또한 귀농을 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귀농하게 된 목적은 주로 어디에 두고 있는냐는 질문에 농업도 해볼만 할 것 같아서, 농업으로 재기하려고 하는 등의 영농창업목적이 171명(55.2%),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또는 농촌이 좋아서 등의 농촌생활목적이 89명(28.7%), 도시가 싫어서 또는 도시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등의 탈도시화 목적 및 그밖의 다른 목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0명(16.1%)이었다.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귀농한 경우의 연령, 학력, 영농규모, 귀농전의 직업 등을 살펴보면 첫째로 연령은 40~49세가 117명(68.4%), 40세미만이 54명(31.6%)로 나타났고, 둘째로 학력은 대졸이상 96명(56.1%), 고졸 75명(43.8%)로 나타났으며, 셋째로 영농규모는 1,000~5,000명이 112명(65.5%), 5,000명 이상이 48명(28.1%), 1,000명 미만 또는 구입예정인 11명(6.4%)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농전의 직업은 회사경영 및 자영업자가 35명(20.5%), 직장생활자가 136명(79.5%)로 나타났다.

농촌생활을 목적으로 귀농한 경우는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귀농한 경우에 비하여 연령이 높은 50세 이상의 대부분이었고, 영농규모가 1,000평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탈도시화 등 그 밖의 목적으로 귀농한 경우에는 영농창업목적의 귀농자나 농촌생활목적의 귀농자에 비하여 연령이 40세미만이 대부분이었으며, 영농규모가 없거나 구입예정으로 있는자가 많았다.

나. 귀농자의 어려웠던 사항과 교육요구

귀농자가 귀농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표 2)에서와 같이 ①자금부족 및 영농기반 조성 곤란(61.9%) ②영농기술 부족(19.7%) ③생산물의 판매곤란(12.6%) ④주위사람들의 시선(4.2%) ⑤일손부족이나 기타(1.6%)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이를 귀농목적에 따른 귀농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영농창업형 귀농자의 경

우는 ①영농자금 및 영농기반 부족(58.5%) ②영농기술 부족(18.7%), ③생산물 판매곤란(14.0%) ④주위사람들의 시선(4.7%) ⑤일손부족이나 기타(4.1%) 순으로 전체의 응답경향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농촌생활형 귀농자의 경우는 ①자금부족 및 영농기반 조성 곤란(65.1%) ②영농기술 부족(25.8%) ③주위사람들의 시선(5.6%) ④생산물의 판매곤란(3.5%) 순으로 반응을 보였으며, 탈도시형 귀농자의 경우는 농촌생활 귀농자의 경우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필요로 했던 정보나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제시한 보기를 대부분 지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자금부족 및 영농기반 조성곤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으로는 ①귀농자 지원정책 및 농지구입에 관한 것 ②농협의 영농자금 대출에 관한 것 ③생력재배나 유기농업과 같이 비용이 적게드는 농사기술에 관한 것 ④작목마다 평균 생산비와 경영비에 관한 것 등 보기에 있는 것을 모두 지적하였고, 보기에 없는 것으로 ①싸게 살 수 있는 농촌지역에 관한 것 ②기업농에 장기취농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로 영농기술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한 것들로 ①수지 맞는 작목 선정기술 ②토양이나 기후 풍토, 재배방법 등에 알맞는 품종선정기술 ③토양개량 기술 ④재배 및 사육기술 ⑤농기계, 기구사용기술 ⑥영농시설물 관리 운영기술 ⑦수확판매에 관한 기술 등

<표 2> 귀농자가 가장 어려웠던 사항

영농자금 및 영농기반 부족	영농기술 부족	생산물 판매곤란	주위사람들의 시선	일손부족 및 기타
192명 (61.9%)	61명 (19.7)	39명 (12.6)	13명 (4.2)	5명 (1.6)

〈표 3〉 귀농자의 가장 어려운 일과 교육요구

어려운 일	필요로 한 교육연구
자금부족 및 영농기반조성곤란	① 귀농자 지원 제도 및 정책정보 ② 농협 영농자금 대출 정보 ③ 생력재배기술, 유기농업기술 ④ 작목별 평균생산비나 경영비에 대한 정보 ⑤ 저렴한 농경지 구입정보 ⑥ 장기 취농가능한 농장에 관한 정보
영농기술 부족	① 수지맞는 작목선정기술 ② 적지적품종 선정기술 ③ 토양개량 기술 ④ 농기계 기구 사용기술 ⑤ 재배 및 사육 기술 ⑥ 영농시설 관리 운영기술 ⑦ 수확판매기술 ⑧ 농산가공기술 ⑨ 농장경영기록진단 기술
농산물 판매곤란	① 농산물 가격 정보 서비스에 관한 것 ② 저온저장 기술 ③ 농산물 가공(전통식품제조) 기술 ④ 농업회사, 법인이나 출하단체 가입 방법
주위사람의 시선 및 일손부족	① 농민들의 특별한 관습이나 성격에 얽나 것 ② 농촌지역의 단체회원이 되는 방법 ③ 농촌 노임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

보기에 있는 것을 거의다 지적하였고, 보기에 없는 것으로는 ①작물 생리장애 방지기술 ②전정기술 ③농산물 가공기술, 농산물 수확시기 조절 기술 ④농업 손·익계산 방식 등을 추가로 제시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영농창업형 귀농자들이 제시한 것이었다.

세 번째로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것들로는 ①농산물 가격정보를 받아볼수 있는 방법 ②저온저장이나 가공 기술을 주로 제시하였고 몇 명 앞되지만 ①전통식품 제조기술 ②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끝으로 주위사람의 시선이나 일손부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에는 ①농민단체의 회원이 되는 방법 ②농민들의 특이한 성격이나 습관 ③ 농촌노임에 관한 정보 등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았다.

다. 귀농자의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시기 및 기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농자의 교육목표는 귀농자의 귀농탐색 및 귀농준비, 귀농적용에 필요로하는 정보를 포함한 지식과 기술을 알게 하는데 두고 교육요구조사

〈표 4〉 귀농단계별 지식적·기술적 교육요구

귀농단계	지식적 교육요구	기술적 교육요구
귀농탐색 및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교육요구	① 귀농자 지원정책 정보 ② 농경지 구입 및 임차방법·절차 ③ 농경지 구입정보(제공기관·단체) ④ 농촌주민의 인성 및 농민조직 ⑤ 농장취업정보(제공기관·단체) ⑥ 작목별 평균소득 분석 정보	① 작목별 생력재배 및 유기농업 기술 ② 농기계기구 구입 및 운전조작 기술 ③ 토양개량·과원조성 영농시설 물 설치 개량기술
귀농적용단계에서 필요한 교육요구	① 농산물 가격 동향과 가격정보 서비스 체제 ② 농장경영 기록과 진단 요령 ③ 농민단체·조직의 역할과 참여 요령	① 적지 적품종선택기술 ② 재배·사육기술 ③ 생리장애 진단기술 ④ 수확 및 출하시기 조정 기술 ⑤ 건조·저온저장 기술 ⑥ 자가 농산물 이용 기술 ⑦ 농기계 자가 정비 기술

를 통하여 교육내용을 선정한 것이 (표 3)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내용이 지식적인 것은 강의, 사례 발표 청취, 토의 등의 교육방법이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강의, 견학실습, 연시 등이 효과적이므로 교육주체의 활용가능한 교육장소와 시설, 강사 동원 능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할 여지가 많이 있다.

또한 교육시기 및 기간은 교육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소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표 3)의 교육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 당연히 장기 교육프로그램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요구에 대하여 종류별 수준별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기술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으로 구분해보고, 이어서 귀농탐색이나 귀농 준비에 필요한 것과 귀농후 적용과정에서 필요로 하거나 비교적 수준이 어려운 기술적

인 것으로 구분해 보았다. 그 결과 표4와 같이 귀농단계별 지식적, 기술적 교육요구를 정리할 수 있었다.

(표 4)의 교육요구를 살펴보면, ①귀농탐색 및 준비단계에 필요한 지식적 교육 요구와 ② 귀농적용단계에서 필요한 지식적 교육요구는 각각 2~3일 정도의 단기간에 교육이 가능한 것들이라 할 수 있고, ③귀농탐색 및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교육요구는 1~2주 내외에서 교육이 가능한 것들이라 할 수 있으며, ④귀농적용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교육요구는 영농작목의 전체 생육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수확후처리 및 농기계의 정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4주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기 교육프로그램의 ①, ②, ③유형을 두가지 이상 결합해서 1~2주 내외의 단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기 교육프로그램과 귀농적용기에 필요한 기술

적 교육요구를 충족시키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 또는 연계해서 5주 이상의 장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기존의 귀농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고찰

가.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의 귀농교육 프로그램

이 교육프로그램은 귀농자에게 영농에 필요한 정보 및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영

농정착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벼, 오이, 포도, 느타리버섯, 한우등 5개 전문품목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으로는 귀농인에 대한 영농지원제도, 농지제도 및 농지구입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분석 능력배양, 농업경영, 기술정보 수집관리, 귀농인 영농정착 성공사례발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현장 비교 견학 및 사례연구, 영농정보교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귀농을 탐색 및 준비단계에서

〈표 5〉 농촌진흥청 귀농교육프로그램

구 분	12.9 (화)	12.10 (수)	12. 11(목)					12. 12(금)				
			벼	오이	포도	버섯	한우	벼	오이	포도	버섯	한우
07-7:50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08-8:50		정보교환	VTR상영					VTR상영				
09-9:50		영농계획 수립 및 분석방법	재배전망 및 품종	재배전망 및 적지전정	재배전망 및 적지전정	재배전망 및 적지전정	사육전망 및 축사시설	병해충 방제	현지 견학	시설 재배	현지 견학	현지 견학
10-10:50			토양관리 및 시비	하우스 설치 요령	품종해설 및 개원	활성탄 재배	번식률 향상 기술					
11-11:50	등록	21C 농업정책방향	점심					경영분석요령	기자재 사용요령	병해충 및 조수 피해방제	병해충 방제	경영분석요령
12-12:50	점심											
12-13:50	교육 안내	점심	사례 발표	상토조제 및 육묘기술	사례 발표	사례 발표	사례 발표	설문조사 및 수료식				
14-14:50	귀농인 영농지원제도	농산물 유통현황 및 경영 전략	생력과 재배 기술	작형별 재배 기술	생리장해 대책	약용버섯재배 기술	질병예방 및 진단					
15-15:50												
16-16:50	농지제도 및 구입요	농업정보 활용법			저녁							
17-17:50	령 농업금											
18-18:50	융화용	저녁		에너지 절약 재배기술	토양관리 및 시비	느타리 버섯 재배기술	고급육 생산기술					
19-19:50	법 저녁 21세기 농업이	영농실제와 농장관리										
20-20:50												

영농창업형 귀농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적·기술적 교육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작목을 경영할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귀농자들이 2가지 이상의 작목에 대한 기본기술을 배워 비교탐색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마지막 2일간의 교육을 식작,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으로 분반하고 교육기간도 현재보다 늘려서 1주(6일)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농촌지도소의 귀농교육 프로그램

시군농촌지도소별로 1박2일 또는 2박3일 정도의 단기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인천시농촌지도소의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수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97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영농창업교실을 처음 시작하여 5월에는 영농창업자특별교육으로 버섯반(5월 7일-8일), 화훼분재반(5월 6일), 과수채소반(5월 21일-22일)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자의 노후생활과 재산관리 등에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처음의 교육내용은 퇴직금을 이용한 농지구입요령과 등기절차, 농지활용 및

소득창출방안, 생업으로서 농업의 비전, 지역농업개발전망, 특용작물(채소, 버섯, 한우, 양봉 등)에 대한 기술교육, 우수농장 견학, 작목별 우수성공사례 등이다. 따라서 귀농탐색 및 준비단계에 있는 여러 유형의 귀농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적·기술적 교육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귀농자 지원정책 및 농장취업정보에 대한 교육내용이 보완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충북대학교 (창업경영자과정) 교육프로그램

이 교육프로그램은 영농희망자들에게 올바른 농업관을 심어 주고 농업의 장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적절한 종목을 선택하여 수지맞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배우고 영농을 체험하며 농대교수 및 영농 선배들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맺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총 16주의 강의와 현장실습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1기 창업경영자과정의 지원생 29명은 채소반 6명, 한우반 7명, 낙농반 6명, 특작반 2명, 과수반 1명, 양돈반 2명, 화훼반 5명 등 7개 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내용

<표 6> 인천시농촌지도소 (영농창업교실) 교육프로그램

시 간	4. 1(화)	4. 2(수)	4. 3(목)
9~10	등록		
10~11	개회	농지구입절차 및 농지제도	명예퇴직자 영농성공사례담 및 질의
11~12	직업으로서의 농업의 위상		
12~13	중식	중식	중식
13~14	품목별 소득작목	분재, 화훼 현황 및 전망	
14~15	우수경영사례 발굴 및 토의	과수, 채소업 현황 및 전망	
15~16	농장경영진단	축산업 현황 및 전망	
16~17	농지구입절차 및 제반사항	버섯재배 현황 및 전망	

〈표 7〉 창업경영자과정 교육프로그램(1996년-1996년 12월 31일)

주 별	일 자	교 시	강 의 내 용
1주	9. 10	1	입학식 교육내용안내
2주	9. 17	1 2 3 4	국제화시대의 농업경영자의 바람직한 자세 21세기의 식량문제와 한국의 쌀 산업 충북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과제 컴퓨터 기초(이론과 실습) 1반(15 : 40~16 : 50) 2반(16 : 50~18 : 00) 가축질병 치료와 예방대책(15 : 40~16 : 50)
3주	9. 24	1 2 3 4	농산물 유통 현황과 발전방향 농업환경의 오염실태와 정화방안 고품질 쌀 생산기술 윈도우스 95 I(이론과 실습)아이콘, 시작메뉴 2반(15 : 40~16 : 50) 1반(16 : 50)~18 : 00) 내가 개발하는 원예품종-1반(15 : 40~16 : 50)
4주	10. 4~10. 5		창의력 개발과정 합동연수(농협안성연수원)
5주	10. 8	1 2 3 4	채소류의 재배현황과 발전과제 윈도우스 95II(이론과 실습) 과일 및 폴더시행 1반(11 : 40~13 : 00) 2반(15 : 40~17 : 00) 한국농업의 새로운 비전 창업과정 연농준비 이론 강의 연농설계와 농장관리 방법
6주	10. 5	1~4	전문반 현장실습 채소반 : 원예실험장 견학 및 실습 자재기기의 특성과 이용 포도반 : 육천포도시험장 포도신품종 소개 한우, 낙농반 : 축산기술연구소견학 및 실습 (강의) 한우개량과 고급육 생산 껌소개량과 번식 양돈반 : 개척농장(이천) 견학 및 실습 (강의) 대를 잇는 양돈경영 버섯반 : 표고버섯사업소 강의와 실습
7주	10. 22	1 2 3 4	21세기 한국농업발전 전략 세계곡물시장의 전망과 식량정책 한국 축산기술 방향과 과제 농업 정보화의 개념과 정보이용
8주	10. 29~10. 30		농기계 위탁훈련 실시(수리능력개발)

주 별	일 자	교 시	강 의 내 용
9주	11.5	1 2 3 3 4	21세기 세계경제전망과 지역경제의 과제 주년재배 토양문제와 관리 훈글프로 96 I 훈글프로 96II 창업과정 영농준비 이론 강의 정부의 영농지원 정책과 제도 해설
10주	11.12	1~4 1	창업과정 앞서가는 선진 영농 견학 힘있는 충북 건설을 위한 충북 농정계획과과제
11주	11.9	2 3 4	21세기한국농업발전전망과 농정방향 식물의 영양과 생리장해 훈글1-2-3 I 기본메뉴(표작성) 1반(15 : 40~16 : 50) 2반(16 : 50~18 : 00) 가축질병 치료와 예방대책 II
12주	11.26	1 2 3 4	지역농업발전과 농촌지도자의 역할 효율적 병해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법 효율적 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사용법 훈글 1-2-3 II 보조메뉴(표계산) 2반(15 : 40~16 : 50) 1반(16 : 50~18 : 00) 조경의 이론과 실제-1반(15 : 40~16 : 50)
13주	12.3	1 2 3	북한농업현황과 통일시대 농업발전 방향 신농약개발현황과 농약안전사용 요령 작목선정위한 준비교육 원에 창업 위한 준비 축산 부문 창업위안 준비
14주	12.10	1 2 3 4	'97 충청북도 농정방향과 과제 과수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토양의 비옥도와 토양관리 인터넷 기초(소개, 기능, 주요정보)
15주 16주	12.17	1 2 3 4	지역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생명을 살리는 농업 물 위기와 수자원 관리 창업준비를 위한 교수님들과의 상담 졸업시험

은 충북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 과제, 컴퓨터 기초(이론과 실습), 농업환경의 오염실태와 정화방안, 고품질 쌀 생산기술, 농업정보화의

개념과 정보이용, 창업과정 영농준비 이론 강의, 영농설계와 농장관리 방법, 작목별 전문반별 현장실습[채소반(원예시험장), 포도반(육천포

〈표 8〉 농협 세계화농업기술 [돌아오는 농촌] 교육프로그램

구 분	8.26 (화)	8.27 (수)	8.28 (목)	8.29(금)
6~7	입교 및 등록	기상 및 전학(학습농장)		종묘개발센터
7~8		아침식사		
8~9		상호토의	농협의 역할과 사업이용	상호토의
9~10		과수전망과 재배기초	축산업 동향과 사양기초	창업농가사례2
10~11				농지의 소유 및 취득
11~12		시설채소 전망과 재배기초	농촌주택 취득요령	수료소감 및 수료식
12~13				점심식사
13~14		입교식 및 교육안내	점심식사	
14~15	한국농업의 역할과 미래	현 장 견 학 태춘농장 (채소) 현춘목장 (한우) 덕수농원(배,포도)	선진농가 사례 채소(오이) 축산(한우)	
15~16	영농설계와 농장관리		농정시책과 귀농인력 지원방향	
16~17	영농자금조달방법		창업농가사례1	
17~18				
18~19		저녁식사		
19~20	자기소개 및 반별대화(분임토의실)	선진농가사례 과수(포도) 화훼(장미) 특작(버섯)	수료 간담회	
20~21		자유시간		
21~22				
22~23		취침		

표 9.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학교의 1차 교육프로그램

구 분		
생명을 생각한다	9월 9일	생명을 생각한다(오리엔테이션)
	9월 12일	전지구적 환경문제와 문명의 전환
	9월 16일	밥과 생명
	9월 19일	땅과 생명
생명과 농업	9월 21, 22일	생태적 각성과 본능
	9월 23일	우리농업, 농촌 어디로 가고 있는가?
	10월 1일	농촌환경문제와 농민
생명을 살리는 농부들	10월 4일	생명을 살리는 농업
	10월 6일	찾아가보자/현장견학교육
	10월 7일	함께사는 마을:두레 공동체
	10월 10일	자연과 함께 하는 대안교육

도시협장), 한우낙농반(축산기술연구소), 양돈반(이천개척농장), 버섯반(청원표고버섯사업소) 등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전체교육기간이 16주이나 매주 1일씩 12주간 실시하는 교육과 2일간의 위탁교육 2주, 4일간의 선진영농견학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교육일수는 20일 정도의 중기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귀농탐색단계에서부터 귀농적응기 단계에 있는 여러 유형의 귀농자들에게 공통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6주째 채소, 포도, 한우 및 낙농, 양돈, 버섯등 5개 전문반으로 분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전과후에 전문반으로의 구분운영에 일관성이 없어 어떤주에는 채소(채소 재배현황과 발전과제), 어떤주에는 축산(가축질병치료와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만 하게 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라. 농협 안성연수원의 (돌아오는 농촌: 창업농장주) 교육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귀농탐색 및 준비단계의 영농창업형 귀농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적·기술적

교육요구에 잘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 여겨진다. 기술적인 교육내용도 여러 가지 작목분야를 비교 탐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대상자들의 분임토의, 성공한 귀농자들의 사례발표, 다양한 농장견학도 비교탐색 및 준비에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농기계·기구의 구입 및 운전조작에 관한 교육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의 농기계훈련계나, 시군농촌지도소에서 운영되는 농기계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라도 연계되면 보다 완성된 귀농탐색 및 준비단계 귀농교육이 될 것이다.

마. 전국귀농운동본부(귀농학교) 교육프로그램

이 교육프로그램의 특징은 1차 통합교육으로 귀농에 관한 정신교육과 농업과 자연에 관한 철학적인 이념교육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개월간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3시간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2차 교육이 현장

<표 10>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학교의 2차 현장실습교육 농장

구 분	지 역		장소 & 내용
실습농장	경인지역		풀무원농장
	강원지역		횡성, 양구의 농가 2개소
	충북지역		충북농촌개발회
	경남지역		간디학교/거창생명누리농원
	경북지역		경북의성 쌍호공동체
	전북지역		변산 한울공동체/변산 실험학교
	전남지역		장성 한마음공동체
작목별 위탁교육 농가	경북 금릉	포도	
	경북 상주	포도, 사과	
	강원 화천	고냉지채소	
	충북 음성	채소류	
	충북 부여	딸기	
	경기 화성	축산	
	충남 홍성, 전남 보성	쌀	

〈표 11〉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귀농교육프로그램(원예, 특작, 약초, 표고버섯 분야)

시간	4월 14일(화)	4월 15일(수)	4월 16일(목)	4월 17일(금)
9~10		귀농창업 경영관리(공인회계사)	해외농업개발의 비전과 전망	수료식
10~11		고추, 마늘, 콩, 재배와 유통(독농가)	더덕, 도라지, 머위, 참두릅, 취나물재배와 전망	전학
11~12				
12~13		중식	오리농법 벼농사의 재배기술과 전망	
13~14	등록 및 접수	표고버섯 재배 경영사례(독농가)		
14~15	개강식(회장)			
15~16	특강(송재득)	수박, 향신료채소재배, 짜기름 채소 재배와 전망	표고버섯 재배기술과 요령	
16~17	농림부 농촌인력과			
17~18	농림부 농촌정비과	귀농창업의 창의력 개발과 오리엔테이션	특수채소재배와 시장개발 전략	

〈표 12〉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귀농교육프로그램(특수가축, 배, 관광농원, 느타리버섯 분야)

시간	4월 14일(화)	4월 15일(수)	4월 16일(목)	4월 17일(금)
9~10		해외농업개발의 비전과 전망	귀농창업 경영관리	수료식
10~11		육염소 사육과 산머루 재배로 성공한 농업인(독농가)	신품종 벼의 고점경신 성공사례	전학
11~12				
12~13		중식	중식	
13~14	등록 및 접수	느타리버섯 재배기술과 앞으로의 전망(독농가)		
14~15	개강식(회장)			
15~16	특강(송재득)		토종닭 사육기술과 전망	
16~17	농림부 농촌인력과			
17~18	농림부 농촌정비과	관광농원 운영사례	귀농창업의 창의력 개발과 오리엔테이션	

계절학교를 중심으로 현장학습과 가족단위 학습이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왜 귀농인가, 전 지구적 환경문제와 문명의 전환, 흙의 문화를 위하여, 생태마을 이야기, 두레마을 이야기, 땅과 생명, 생명을 살리는 농업, 흙과 농업, 퇴비 살리기 실습, 공생의 쌀농사, 흙과 함께하는 교

육, 농가 고쳐서 살기, 도·농 직거래 운동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교육프로그램은 친환경농업운동차원의 귀농희망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운동차원의 교육은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의 정체성을 반영하는데 우

선을 두기 마련이므로 객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곤란할 것 같다.

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귀농교육프로그램

이 교육프로그램은 4일 단위로 여러차례 운영계획된 단기교육프로그램이면서 한번의 프로그램마다 4가지 작목에 대한 재배·사육현황, 기초 또는 기본재배·사육기술과 귀농지원정책, 해외농업개발의 비전과 전망등 여러 가지 교육내용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구성된 점으로 보아서 귀농탐색단계의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으나 너무나 많은 작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수준이라서 귀농준비단계에 있는 귀농자들에게는 만족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IV. 결론 및 요약

귀농자의 교육프로그램은 귀농자가 귀농탐색, 귀농준비 및 귀농적용단계별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지식·기술사항등을 이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축적이고,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귀농자의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귀농자 단기교육프로그램의 첫 번째 유형은 귀농탐색 및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지식적 교육요구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은 ①귀농자 지원제도 및 정책 ②농경지구입 및 입차관련법규 ③작목별 평균소득 분석내용의 이해 ④농촌주민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농민조직의 이해 ⑤농지매매정보 및 농장취업정보 등이며, 강의자료를 잘 갖춘 강사들에 의해서 짧게는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농촌주민의 사회·심리적 특성이나

농민조직의 이해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는 귀농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의 굶지않은 시선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를 청취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귀농자 단기교육프로그램의 두 번째 유형은 귀농탐색 및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교육요구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①작목별 생력재배기술 ②친환경 농업기술 ③농기계·기구의 구입 및 운전조작기술 ④토양개량, 과원조성 또는 영농시설물 설치등 영농현장준비요령 등이다. 농기계·기구구입 및 운전조작을 별도의 단기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를 포함하면 2주 내외의 프로그램으로, 이를 제외하면 1주 이내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방법은 견학·연시·실습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귀농자 단기교육프로그램의 세 번째 유형은 귀농적용기에 필요한 지식적 교육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①농산물 가격변동의 원인과 가격정보서비스체제 ②농장경영기록 및 진단 ③출하단체·조직의 현황과 참여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농장경영기록 및 진단을 교육할 때에는 가급적 PC의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록 및 진단하는 요령을 실습위주로 교육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 경우 1주 정도의 교육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단기교육프로그램 유형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하나의 단기교육프로그램으로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교육프로그램은 귀농탐색 및 준비를 위한 지식적·기술적 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귀농자의 장기교육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귀농적용기에 필요로 하는 기술적 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귀농적용기에는 작물의 일생을 경험하면서 ①적지적품종

선정 ②재배 및 사육기술 ③병해충진단·방제기술 ④수확후처리(건조, 저온저장등)기술 ⑤농기계 자가정비기술 등 다양한 기술적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장기교육프로그램은 1~2개월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시기성있는 단원별로 주1회 귀농자 교육의 날을 정하여 연중 실시한다거나 기존의 전문농업인의 교육에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단기교육프로그램과 장기교육프로그램은 시계열적으로 연결하여 귀농자를 위한 종합적인 장기교육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장기교육프로그램도 단기교육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몇가지 유형으로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성수, 1997, U턴 청년 정부가 책임지윈, 예향, 1997년 3월호.
2. 김수일, 1988,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 편, 서울, 형설출판사.
3. 김진화, 1996,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해석학적 분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4. 농림부, 1997, 귀농안내(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위한).
5. 농촌진흥청, 1995, 농민교육과정 개발요령.
6. 농협세계화농업지도자교육원(안성), 1995, 돌아오는 농촌(창업영농주).
7. 서규선, 이무근, 1984, "새마을 청소년회 생애탐색과제설정과 그 지도를 위한 이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종합연구 제4권 제1호.
8. 이동하, 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9. 이상하, 1996,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프로그램, 월간상업농경영 10월호.
10. 이용환, 1996. 3, "농업 및 농촌개발에서의 환경교육", 농촌계획 vol. 2 no. 1.
11. 전국귀농운동본부 창립총회 자료집, 1996.
12. 이용환, 1997, "진로결정요인에 기초한 영농후계자 확보를 위한 신교육전략에 관한 연구", 대산논총 제5집, 재단법인 대산농촌문화재단.
13. 정지웅, 김지자, 1995, 사회교육학 개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14. 조륙환, 1998. 4, "귀농가구의 생활실태", 농촌생활과학 통권73호.
15. 최민호, 1995, 농촌지도론: 농촌사회교육적 접근, 서울, 서울대출판부.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농학계대학부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개선방안.
17. Gordon. J. Fielding, 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N.Y., Harper and Row Pub.
18. J. M. Moore, 1971, "Maxican Americans and Cities: A Study on Migration and the Case of Informal Resourc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5.
19. Roseman. C. C., 1981,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the Midwest, NCRC, Iowa State Univ.